

언어폭력 예방상담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소 유 진

홍덕초등학교

최 병 연[†]

전주교육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친구관계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 A군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실험집단(12명)과 통제집단(12명)으로 나눈 후, 실험집단에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총 10회기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친구관계 하위 영역 중에서 동반감, 인정, 정서적 안정, 전반적 만족감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격성 하위 영역 분석 결과에서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흥분성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어 : 언어폭력 예방상담, 친구관계, 공격성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1)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병연,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화로 89
Tel : 063-281-7184, E-mail : choiby@jnue.kr

작은 사회와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학자 Whorf(1956)가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 했듯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하는데 언어는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폭력적인 언어를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다. 대중매체인 라디오, TV의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며 욕설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 등 폭력적 언어를 방송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컴퓨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알 수 없는 속어나 비속어들이 난무하며, 상대방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악성댓글을 다는 등의 언어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언어는 신체폭력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남기며,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Hilton, Kottke, & Pfahler, 1999). 실제로 최근에는 언어폭력이 자살이나 살인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악성 댓글, 악성 루머로 인한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전임병의 언어폭력과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진 신병의 사건 등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김나현, 2010). 이렇게 언어폭력은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언어폭력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의 언어사용 형태를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욕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악성댓글을 달고 타인의 험담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3월 방송된 KBS스페셜 “욕설”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프로그램 「10대, 욕에 중독되다」에서는 학생들의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학생들의 일상대화 약 400여 마디 중 욕설과 관련된 단어를 제외하고 남은 단어가 토씨나 접속사 정도인 160여 단어만 남는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소재희, 2010), 이는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만큼 학생들의 폭력적 언어사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의 범주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1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이 2위로 신체적 폭력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이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언어폭력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한편, 조향(2003)에 의하면 욕설을 많이 사용하게 된 시기가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과도기적 성향을 보이는 몇몇의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초등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9년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교폭력의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23%가 언어폭력을 꼽았는데, 이는 2007년 14.8%보다 증가한 것이다.

언어폭력은 초등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Gartrell(1987)에 따르면 언어폭력은 분노

와 슬픔을 느끼게 하며 자아존중감에 상처를 입히고 불안감과 적대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으며, Ketterman(2000)은 농담으로 한 말이라도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다고 하였고, Straus(1991) 역시 부모에 의한 언어폭력이 유아의 대인관계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이수영, 2011에서 재인용). 이처럼 초등학교 시기의 언어폭력은 아동에게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하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실제로 초등학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능력이나 주변을 인식하는 사회적 인지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듣는 욕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과 교우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sher와 Dodge(1986)의 연구에서도 배척아들이 더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아이들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부되고 배척되기 때문에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언어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언어폭력 예방상담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일선학교에서의 교사들 역시 학생들이 욕이나 비속어 등의 말을 했을 때 다음에 하지 못하게 주의를 주는 정도의 지도를 할 뿐 언어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능동적인 지도가 부족하다.

최근 소개된 일부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예, 김나현, 2010, 이수영, 2010)은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현 실정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된 것이다. 언어폭력이 고학년뿐 아니라 저학년에서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폭력 예방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박민정(2006)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학년일수록 언어폭력이 나쁘다는 인식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학년에게 언어폭력이 무엇인지를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활용이 가능한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그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친구관계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4명으로서 한 학급은 실험집단으로 그리고 다른 한 학급은 통제집단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12명의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하였으며,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집단별	성별		계
	남	여	
실험집단	7	5	12
통제집단	6	6	12
계	13	11	24

연구자가 직접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실험집단과 비슷한 규모의 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의 12명은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친구관계에 있어 동질의 집단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사전검사 점수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친구관계 하위요인에서 동반감($F_{(1,21)} = .347, p > .05$), 도움제공($F_{(1,21)} = .295, p > .05$), 친밀감($F_{(1,21)} = 1.349, p > .05$), 나에 대한 인정($F_{(1,21)} = 1.800, p > .05$), 정서적 안정($F_{(1,21)} = .210, p > .05$), 신뢰($F_{(1,21)} = 1.273, p > .05$), 전반적 만족($F_{(1,21)} = 2.2565, p > .05$), 갈등($F_{(1,21)} = 2.973, p > .05$), 경쟁($F_{(1,21)} = .010, p > .05$)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친구관계에 있어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공격성에 있어 동질 집단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사전검사 점수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공격

성 하위영역 분석 결과 신체적 공격성($F_{(1,21)} = 3.257, p > .05$), 언어적 공격성($F_{(1,21)} = .579, p > .05$), 간접적 공격성($F_{(1,21)} = 3.733, p > .05$), 부정성($F_{(1,21)} = 0.47, p > .05$)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공격성에 있어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흥분성은($F_{(1,21)} = 9.300, p < .0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로 교우관계검사와 공격성 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 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1주에 2회씩 매회 40분간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가. 친구관계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향숙(2004)의 친구 관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친구관계 검사지는 5점 Likert 척도로, 3가지 하위 영역 즉, 친구 관계의 긍정적 특성, 부정적 특성, 전반적 만족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긍정적 특성은 동반감, 도움, 친밀감, 신뢰감, 인정, 정서적 안정성의 6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 특성인 갈등과 경쟁 2개 영역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으로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표 2. 친구관계 사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 기능	실험집단	12	2.77	.53	
	동반감 통제집단	12	2.92	.68	
	합계	24	2.84	.60	
	실험집단	12	2.48	.68	
	도움제공 통제집단	12	2.60	.41	
	합계	24	2.54	.55	
	실험집단	12	2.22	.59	
	친밀감 통제집단	12	1.94	.64	
	합계	24	2.08	.62	
	실험집단	12	2.40	.57	
	나에 대한 인정 통제집단	12	2.10	.49	
	합계	24	2.25	.54	
	실험집단	12	2.27	.48	
	정서적 안정 통제집단	12	2.35	.41	
	합계	24	2.31	.44	
	실험집단	12	2.52	.71	
	신뢰 통제집단	12	2.81	.54	
	합계	24	2.67	.64	
	실험집단	12	2.40	.49	
	전반적 만족 통제집단	12	2.83	.81	
	합계	24	2.61	.69	
	부정적 측면	실험집단	12	3.08	.73
		갈등 통제집단	12	2.67	.40
		합계	24	2.88	.62
실험집단		12	2.75	.57	
경쟁 통제집단		12	2.71	1.27	
합계		24	2.73	.99	

표 3. 친구관계 사전검사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요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긍정적 기능	동반감	집단간	.128	1	.128	.347	.562
		집단내	8.099	22	.368		
		합계	8.227	23			
	도움제공	집단간	.094	1	.094	.295	.592
		집단내	6.990	22	.318		
		합계	7.083	23			
	친밀감	집단간	.510	1	.510	1.349	.258
		집단내	8.323	22	.378		
		합계	8.833	23			
	나에 대한 인정	집단간	.510	1	.510	1.800	.193
		집단내	6.240	22	.284		
		합계	6.750	23			
	정서적 안정	집단간	.042	1	.042	.210	.651
		집단내	4.365	22	.198		
		합계	4.406	23			
신뢰	집단간	.510	1	.510	1.273	.271	
	집단내	8.823	22	.401			
	합계	9.333	23				
전반적 만족	집단간	1.148	1	1.148	2.565	.123	
	집단내	9.849	22	.448			
	합계	10.997	23				
부정적 측면	갈등	집단간	1.042	1	1.042	2.973	.099
		집단내	7.708	22	.350		
		합계	8.750	23			
	경쟁	집단간	.010	1	.010	.010	.921
		집단내	22.729	22	1.033		
		합계	22.740	23			

표 4. 공격성 사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공격성	실험집단	12	2.85	.31
	통제집단	12	3.08	.32
	합계	24	2.97	.33
언어적 공격성	실험집단	12	2.78	.36
	통제집단	12	2.67	.39
	합계	24	2.73	.72
간접적 공격성	실험집단	12	2.70	.28
	통제집단	12	2.95	.35
	합계	24	2.83	.34
부정성	실험집단	12	2.70	.30
	통제집단	12	2.67	.44
	합계	24	2.68	.37
흥분성	실험집단	12	2.62	.28
	통제집단	12	2.93	.23
	합계	24	2.78	.30

표 5. 공격성 사전검사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요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신체적 공격성	집단간	.327	1	.327	3.257	.085
	집단내	2.207	22	.100		
	합계	2.533	23			
언어적 공격성	집단간	.082	1	.082	.579	.455
	집단내	3.103	22	.141		
	합계	3.185	23			
간접적 공격성	집단간	.375	1	.375	3.733	.066
	집단내	2.210	22	.100		
	합계	2.585	23			
부정성	집단간	.007	1	.007	.047	.830
	집단내	3.107	22	.141		
	합계	3.113	23			
흥분성	집단간	.602	1	.602	9.300	.006
	집단내	1.423	22	.065		
	합계	2.025	23			

표 6. 친구관계 하위요인

하위요인		정의
긍정적 특성	동반감	친구와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 것과 그 때 경험하는 재미와 즐거움에 대한 기대
	도움제공	친구관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해주거나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주는 특성
	친밀감	친구관계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용적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친구의 욕구나 기분상태를 민감하게 아는 특성
	나에 대한 인정	친구관계에서 격려 등과 같이 긍정적 측면에서 자아개념을 증진시켜주거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는 특성
	정서적 안정	친구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에 편안함과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특성
	신뢰	친구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친구의 충직함에 대한 믿음
전반적 만족		친구관계에 대한 애정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
부정적 특성	갈등	친구와 의견의 불일치 다툼 또는 친구의 괴롭힘 등 불편한 상황에 대한 지각
	경쟁	학교와 놀이상황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친구와의 경쟁심

있다.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은 <표 6>과 같다. 박향숙(2004)이 제시한 본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24로 긍정적 특성이 .934, 전반적 만족이 .838, 부정적 특성이 .811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이 높은 것으로 친구관계가 우호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공격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손교원(2006)의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공격성을 검사하였다. 본 검사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흥분성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을 살펴보면 신체적 공격성은 사람들이 행하는 육체적인 공격을 말하는 것이며, 언어적 공격성은 공격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보이는 언어적 반응을 말한다.

우회적 공격성은 공격을 유발한 사람이 아닌 다른 표적에 대한 공격적 행위나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위해 반응하는 것, 부정성은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반감을 갖는 것, 흥분성은 쉽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려는 행동이나 경향을 말한다. 총 25문항이며, Likert 4단계 평정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25~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손교원(2006)이 제시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88로 신체적 공격성 .73, 언어적 공격성 .76, 간접적 공격성 .72, 부정성 .73, 흥분성 .78이다.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003)의 비폭력 의

표 7.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회기	단계	주제	활동 목표	주요 활동	참고자료
1	자기개방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친밀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 약속 정하고 서약서 쓰기 • 별칭 짓고 소개 	김나현(2010)
2	주제인식	욕, 이렇게 심각해	언어폭력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욕의 사용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감상 • 진실게임 	김나현(2010) 이수영(2010)
3	상황별 언어폭력 대처 단계	욕 대신 이렇게	욕을 하는 대신 기능적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풀기 • 욕의 영향력에 대해 토의 • 비폭력 언어로 자기 표현 	김나현(2010) 이상미(2009) 이수영(2010)
4		분노 멈추기	욕이나 나쁜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풀기 • 역할극 하기 • 정리 및 마무리하기 	이수영(2010)
5		무시하는 말은 싫어	조롱하는 말 대신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보기 • 역할극 하기 • 칭찬 및 마무리하기 	이수영(2010)
6		막말, 비하하는 말은 그만	막말, 업신여기거나 낮추는 말 대신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보고 나쁜 말 찾기 • 상황에 알맞은 말 찾기 • 표현해 보기 	김나현(2010)
7		내 마음을 알아줘!	회롱을 당하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떠올리기 • 동영상 시청 • 역할극 하기 • 평가 및 마무리하기 	이수영(2010)
8	난 너와 생각이 달라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적, 소극적, 공격적 행동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감상 • 상황설정 • 역할극 하기 • 평가 및 마무리하기 	이수영(2010)	
9	외모, 성격, 능력에 대해 말할 땐 나처럼	외모, 성격, 능력에 대해 놀리는 말 대신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리는 말을 한 경우 찾기 • 비폭력 언어로 자기표현 게임하기 	김나현(2010)	
10	실천하기와 다짐하기	실천의지를 다지고, 프로그램을 정리하며 느낀점 발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점 정리하기 • 사랑의 편지쓰기 • 다짐카드 쓰기 • 느낀 점 발표 및 프로그램 평가하기 	이수영(2010)	

사소통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며, 노효송(2007), 김나현(2010), 이수영(2010), 이상미(200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데 참고한 선행연구들이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이를 초등학교 저학년에 알맞게 재구성하기 위하여 활동중심의 역할놀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학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저학년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거나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WIN(17.0)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과 일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친구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집단간의 친구관계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8>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친구관계 사후검사에 대한 일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관계 하

위요인에서 동반감($F_{(1,21)} = 6.522, p < .05$), 인정($F_{(1,21)} = 5.023, p < .05$), 정서적 안정($F_{(1,21)} = 5.816, p < .05$), 전반적 만족($F_{(1,21)} = 6.320, p < .05$)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제공($F_{(1,21)} = .000, p > .05$), 친밀감($F_{(1,21)} = 2.819, p > .05$), 신뢰($F_{(1,21)} = 1.885, p > .05$), 갈등($F_{(1,21)} = .110, p > .05$), 경쟁($F_{(1,21)} = .043, p > .05$)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언어폭력 예방상담프로그램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집단 간의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0>과 같다.

<표 10>을 기초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일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공격성($F_{(1,21)} = 4.540, p < .05$), 언어적 공격성($F_{(1,21)} = 10.380, p < .05$), 흥분성($F_{(1,21)} = 6.735, p < .05$)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적 공격성($F_{(1,21)} = 1.842, p > .05$), 부정성($F_{(1,21)} = 3.527, p > .05$)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친구관계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연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표 8. 친구관계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 기능	동반감	실험집단	12	3.54	.66
		통제집단	12	2.90	.52
		합계	24	3.22	.66
	도움제공	실험집단	12	2.83	.53
		통제집단	12	2.90	.54
		합계	24	2.86	.52
	친밀감	실험집단	12	2.58	.46
		통제집단	12	2.19	.62
		합계	24	2.39	.57
	나에 대한 인정	실험집단	12	2.88	.69
		통제집단	12	2.29	.71
		합계	24	2.58	.74
	정서적 안정	실험집단	12	3.25	.76
		통제집단	12	2.65	.58
		합계	24	2.95	.73
신뢰	실험집단	12	3.79	.99	
	통제집단	12	3.19	1.05	
	합계	24	3.49	1.05	
전반적 만족	실험집단	12	3.88	.85	
	통제집단	12	3.25	1.00	
	합계	24	3.56	.96	
부정적 측면	갈등	실험집단	12	2.83	.51
		통제집단	12	2.98	.45
		합계	24	2.91	.48
	경쟁	실험집단	12	2.56	.75
		통제집단	12	2.50	1.20
합계	24	2.53	.98		

언어폭력 예방상담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표. 9. 친구관계 사후검사에 대한 일원공변량분석 결과

요인	분산원	계조합	자유도	평균계곱	F	유의확률	
긍정적 기능	동반감	공변량	.079	1	.079	6.522	.018
		집단간	2.355	1	2.355		
		집단내	7.582	21	.361		
		합계	258.813	24			
	도움 제공	공변량	1.655	1	1.655	.000	.993
		집단간	1.664	1	1.664		
		집단내	4.569	21	.218		
		합계	203.188	24			
	친밀감	공변량	.000	1	.000	2.819	.108
		집단간	.880	1	.880		
		집단내	6.557	21	.312		
		합계	144.063	24			
나에 대한 인정	공변량	.468	1	.468	5.023	.036	
	집단간	2.439	1	2.439			
	집단내	10.199	21	.486			
	합계	172.875	24				
정서적 안정	공변량	1.102	1	1.102	5.816	.025	
	집단간	2.480	1	2.480			
	집단내	8.956	21	.426			
	합계	220.813	24				
신뢰	공변량	7.686	1	7.686	1.885	.184	
	집단간	2.064	1	2.064			
	집단내	22.995	21	1.095			
	합계	317.438	24				
전반적 만족	공변량	4.167	1	4.167	6.320	.020	
	집단간	4.446	1	4.446			
	집단내	14.771	21	.703			
	합계	325.875	24				
부정적 측면	갈등	공변량	.260	1	.260	.110	.743
		집단간	.025	1	.025		
		집단내	4.839	21	.230		
		합계	207.938	24			
	경쟁	공변량	3.564	1	3.564	.043	.838
		집단간	.037	1	.037		
		집단내	18.452	21	.879		
		합계	175.813	24			

표 10. 공격성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공격성	실험집단	12	2.01	.13
	통제집단	12	2.99	.30
	합계	24	2.50	.56
언어적 공격성	실험집단	12	2.83	.22
	통제집단	12	3.17	.42
	합계	24	3.00	.37
간접적 공격성	실험집단	12	2.25	.33
	통제집단	12	2.75	.40
	합계	24	2.50	.44
부정성	실험집단	12	2.83	.28
	통제집단	12	3.08	.43
	합계	24	2.96	.38
홍분성	실험집단	12	2.82	.40
	통제집단	12	3.07	.48
	합계	24	2.94	.45

표 11. 공격성 사후검사에 대한 일원공변량분석 결과

요인	분산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신체적 공격성	공변량	.004	1	.004	4.540	.045
	집단간	.547	1	.547		
	집단내	2.529	21	.120		
	합계	219.200	24			
언어적 공격성	공변량	.001	1	.001	10.380	.004
	집단간	1.473	1	1.473		
	집단내	2.979	21	.142		
	합계	154.480	24			
간접적 공격성	공변량	.028	1	.028	1.842	.189
	집단간	.252	1	.252		
	집단내	2.875	21	.137		
	합계	213.320	24			
부정성	공변량	1.625	1	1.625	3.527	.074
	집단간	.450	1	.450		
	집단내	2.679	21	.128		
	합계	212.360	24			
홍분성	공변량	.023	1	.023	6.735	.017
	집단간	.642	1	.642		
	집단내	2.001	21	.095		
	합계	183.160	24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친구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친구관계의 하위 요소들은 동반감, 인정, 정서적 안정, 전반적 만족 등의 4개의 요인이었다.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된 실험집단에서 동반감이 향상을 보인 원인은 친구와 함께 게임이나 역할극 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은 10회기 모두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 보다는 모둠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한다든지, 역할을 나누어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친구들과 협동하며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함께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본 프로그램을 하며 학생들이 활동지에 ‘친구가 칭찬해 주니 기분이 좋았다’, ‘사이좋게 지내야겠다’라는 글을 적었는데, 이는 역할놀이 활동이 아동의 협동심을 증가시킨다는 김애자(200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인정 부분에서는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 속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를 인정해 주는 활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회기가 거듭되면서 비폭력적인 언어 사용 연습이 늘고 자연스럽게 폭력적 언어사용이 감소함으로써 친구관계에서 긍정적 측면의 자아개념이 증진되어나도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을 것이다.

정서적 안정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역할극을 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속 서로 칭찬하며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서도 정서적 유대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겼을 것이다.

전반적 만족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비폭력적으로 이야기 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줄어들고, 서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친구관계가 만족스러워 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프로그램 회기별 관찰 결과와도 일치하며, 노효송(2008)의 연구와도 일부 일치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정진희(2009)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친구관계의 긍정적 하위 영역 중 신뢰 부분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은아(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신뢰 영역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종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친구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본 프로그램은 그러한 신뢰관계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에 프로그램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 Reisman과 Shorr(1978)은 친구관계에서 신뢰 및 충정심 요인은 6학년이 되어서야 확연히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때문에 학생들이 친구관계 중 신뢰에 대한 깊은 자각이 미흡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친구관계 하위 영역 중 도움제공과 친밀감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에 친구들 간에 서로 정보를 주거나 실제로 도와주는 것과 상대의 기분을 좀 더 민감하게 아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구관계에서 부정적 측면인 갈등과 경쟁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본 프로그램이 포함된 내용이 친구관계 중 긍정적 측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많았지만,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요소는 거의 없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공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공격성의 하위 요소들은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흥분성 요인이었다.

신체적 공격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언어로서 상대방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전달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감소하고 이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쓰는 신체적 공격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 중 분노를 통제하는 회기가 들어있는데, 이 또한 신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분노조절 집단상담이 학생들의 신체적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오석희(200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언어적 공격성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이 언어폭력 예방상담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의

언어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노효송(2008), 김나현(2010), 이수영(2010) 등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흥분성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쉽게 화를 내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흥분성은 본 프로그램 3회기에서 분노를 멈추는 방법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집단간의 차이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폭력적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 이러한 흥분성이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접적 공격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이 감소함에 따라 자신의 불만을 언어와 신체적 공격성 이외의 장난이나 고집 등으로 간접적으로 분출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부정성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본 검사지에서 질문한 부정성은 일반적 상황에서의 부정성을 나타낸 것이었다.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하며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었으나, 프로그램이란 특수적 상황에서의 부정성 감소가 일반적 상황까지 확산되기에 10회기라는 횟수는 너무 짧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친구관계 중 동반감, 인정, 정서적 안정, 전반적 만족 영역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언어폭력 예

방상담 프로그램은 같이 참여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 친구관계를 보다 좋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흥분성 영역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 방향과 교육 방법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 각 12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인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이 친구관계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친구관계와 공격성 일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저학년 학생의 특성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2학년 학생들이 아닌 다른 학년 학생들의 학년별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언어폭력 예방상담 프로그램은 친구관계와 공격성 일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추수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나현 (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자 (2000). 역할놀이 활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효송 (2008). 언어폭력예방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 (2006).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폭력적 언어와 유행어 사용실태 분석.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향숙 (2004).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친구관계 및 학교 적응.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재희 (2010). 청소년의 욕설사용과 자아개념 및 충동성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교원 (2006).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석희 (2005). 분노조절을 위한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 (2009). 정서기반 학급단위 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 (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놀이 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2006). Rosenberg의 비폭력 의사소통

- 훈련 프로그램이 배척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2011).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희 (2009). 학교기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정치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조 향 (2003). 청소년 언어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2007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2009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Asher, S. R., & Dodge, K. A. (1986). Identifying children who are rejected by thei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 444-449.
- Hilton, P. E., & Kottke, J., & Pfahler, D. (1999). Verbal abuse in nursing: How serious is it?. *Nursing Management, 25*(5), 90.
- Reisman, J. M., & Shorr, S. I. (1978). Friendship claims and communication of disturbed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 142-148.
- Rosenberg, M. D. (2004). 비폭력 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Life). (캐서린 한 역). 서울: 바오출판사(원전은 2003에 출판).
- Whorf, B. L. (1960).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New York. Julian Press.
- ◆ 원 고 접 수 일: 2011년 8월 18일
 ◆ 수정원고접수일: 2011년 9월 14일
 ◆ 계 재 승 인 일: 2011년 9월 22일

The Effects of Verbal-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Friendship and Aggres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Lower Grade

Yu-jin So

Heungdeok Elementary School

Byung-yeon Choi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verbal-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friendship and aggression of 2n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In order to verify these purpose, total of 24 2nd graders from each different two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the A-Gun(a rural-mountainous area) of JeollaBukdo. Out of students, 12 students were into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the rest of 12 students were into the control-group. The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verbal-violence prevention program. Both groups were pretested the questionnaire on friendship and the questionnaire on aggression. For 12 stude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total of 10 sessions: (40 minutes per session and 2 times a week) of program were conducted. After the sessions were complete, students of two groups took the post-test for proving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e results through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riendship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s which participated in the verbal-violence prevention program and the controlled group which didn't participate in any program.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ggression reduc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s which participated in verbal-violence prevention program and the controlled group which didn't participate in any program.

Key words : Verbal-violence prevention program, Friendship, Aggression